

# 민관협업으로 재난사각지대 없앤다

### 전주시 덕진구, 안전점검·현장행정 날 운영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

전주시 덕진구가 시민 단 한사람의 위기상황 발생 시에도 빠르고 세심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17일 덕진구에 따르면 최근 본격적인 폭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과 화재발생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및 현장행정의 날 운영,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주민센터 위기상황 초기대응 매뉴얼 마련, 진북터널 등 관내 터널 노후 방전등 정비 등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박선이 구청장이 최근 재난 담당부서에 재난상황실 운영 및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전 부서가 협업을 통해 재난에 사전대비하고 상황발생시 현장 출동해 부서별 임무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 강조한데 따른 것이다.

위해, 덕진구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 종합경기장과 전북대학교, 동물원 등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폭염,지진대비 등 주별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서와 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매일 현장행정의 날을 넷째 주 수요일에 운영해 전 직원이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언더패스, 터널, 교량 등 12종 282개소를 대상으로 분야별 시설물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합동으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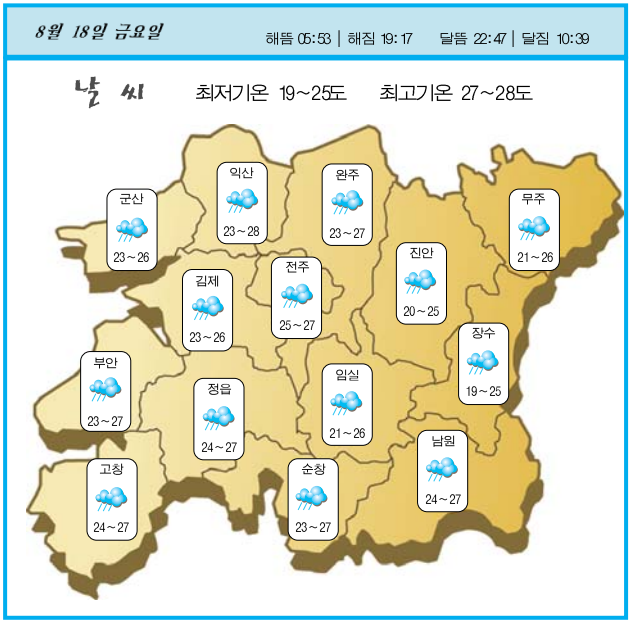
“비정규 교원 양산 강사 제도 폐지하라” 17일 전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전북교육청 앞에서 비정규 교원을 양산하는 강사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총 200개소 9,346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추진하며, 교통놀이화재 등 다양한 주제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유사시 올바른 대처능력을 길러주고 사고율을 낮추는 데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 시 담당부서 혼선으로 초기대응과 협연에 문제점이 있다

고 판단, 시민과 가까운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 상황 초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15개 주민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덕진구는 운전자 안전과 쾌적한 차량 통행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15일간 진북터널 등 4개 관내 터널을 대상으로 노후 방전등을 전면

정비기로 했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최근 청주시 등 타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폭우로 피해가 큰 사례가 많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한 민관협업체계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피해 최소화해 안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군산대, 중국 청도서 유학생 동문인의 밤 개최

군산대학교는 지난 16일 중국 청도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유학생 동문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동문인의 밤에는 군산대학교 나이의 군 총장 이재완 공과대학장, 포세만 국제교육원장, 김인근 국제교육원장, 전임연구원, 유학생동문회장 허규진, 중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동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유학생동문인의 밤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동문들에게 군산대학교의 한국어 과정, 신·편입생, 대학원생 유치정책 등을 소개하며 동문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유학생 동문회를 활성화시켜 유학생 유치 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는 기념사 및 답사, 군산대학교 홍보 동영상 및 발전상황을 담은

PPT 상영, 유학생 유치 활성화 위한 의견 교환, 군산대학교 발전 공로 상 수여, 군산대학교 캠퍼스 내 기념비 건립을 위한 동문회 발전 기금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다.

군산대학교는 재중 유학생동문인의 밤을 시작으로 유학생의 밤 개최 국가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대학교가 지금까지 배출한 중국인 유학생은 600여명에 달한다.

나익균 총장은 "군산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선발기준을 비교적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어 유학생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며, "귀국 후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국 대학 및 연구소, 중국내 주요 기관 및 기업 등에 근무하면서 유학생 유치통로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장현기 기자

## 온실가스 줄이고, 에너지 소비계층도 돕고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온 전주시민들이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에너지소비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탄소포인트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 기부를 희망하는 843세대의 인센티브 1,538만원을 전주연탄은행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탄소포인트에 가입한 가정과 상업시설 등에서 지난해 하반기 중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를 절감해 발생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중 현금으로 지급받는

### 전주시 843가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연탄은행 기부

대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희망한 탄소포인트 참여자 843명의 기부금이다.

기부금은 전주연탄은행에 전달돼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보급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해왔으며, 참여한 시민들은 연간 약 9,800만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해 왔다.

특히, 시가 탄소포인트 가입 및 기부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탄소포인트 가입세대와 기부 참여세대가 늘어나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지역 내 새로운 기부문화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여 에너지도 절약하고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운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 시설 등에서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1년에 상·하반기 2회 지급된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은 인터넷 홈페이지(www.opoint.or.kr)에서 가입하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 군산대 간호학과 상반기 간호교육 인증 중간평가 '인증유지'

군산대학교 간호학과가 '2017년도 상반기 간호교육 인증 프로그램 중간평가에서 인증유지 평가를 받았다.

군산대 간호학과는 지난 2014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한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유효기간 5년의 간호학과 학사학위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고, 올해 중간 평가에서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인정받아 인증유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간호교육인증프로그램은 의료법 7조에 따른 것으로 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교육성과 등 6개 영역 32개 항목을 평가한다.

올해부터는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게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인증 통과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인증평가 중간점검에서 인증유지 평가를 받음으로써 군산대학교는 5년 연속 국가고시 100% 합격이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산=장현기 기자

## 올 여름도 믿고 찾는 정읍 단풍미인쇼핑몰

단풍미인쇼핑몰은 정읍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










미숫가루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은 정읍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

365일! 100% 무료배송

택배비 100% 지원(정읍시청)

회원가입 후 구매시 적립금 2% 지급

매주 1일 특가 할인 이벤트 진행

모든제품 100% 무료배송

전국 어느 곳이나 우체국 택배로

네이버, 다음에서 단풍미인쇼핑몰을 검색하세요!

http://danpoongmall.jeongeup.go.kr

문의 전화 : 090-525-4945(무선) 062-529-4945